

제16호 2020.03.

# 고양시민 장애수용태도 조사 결과와 시사점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문정화(사회복지학 박사)  
jhmoon@gyri.re.kr

경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유선치(실버산업학 석사)  
ysc@gyri.re.kr

## Contents

- I. 고양시 장애 인구 현황
- II.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현황
- III. 고양시민 장애수용태도 조사 결과
- IV. 시사점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개인의 특수성과 다양성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동료로 인정하는 장애수용태도가 높을 때 장애인은 사회적 관계를 잘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통합 가능성은 높아진다. 특히 초중고생의 경우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므로 장애, 비장애 청소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장애수용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2015년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식 권익증진 공모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 등 장애수용태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시스템에서 집계된 고양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행률이 높지 않게 나타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통합 가능성의 주요 예측변수인 고양시민의 장애수용태도는 어떠한가? 본 고에서는 고양 시민을 초중고생,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수용태도를 살펴보고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경험과 특수학급 유무, 장애인식 교육 경험유무가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고양시 초중고생 및 성인의 장애수용태도는 5점 만점에 3.97점으로 중간점수보다 높아 긍정적으로 나왔으며 타 연구와 비교해 볼 때도 다소 높게 나타나 고양시민의 장애수용태도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초중고생, 성인 모두 인지적 요소가 가장 높고 행동적 요소, 정서적 요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요소는 초중고생이 성인보다 높고, 행동적 요소는 성인이 초중고생 보다 높아 초중고생들의 인지적 수용태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중고생 및 성인 모두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장애수용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수용태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도 높고, 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거나 단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 내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와 학급 내 장애친구가 있는 경우 오히려 장애수용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인의 장애인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인식이 긍정적으로 된다는 사회접촉 이론에 반하는 결과이다. 통합교육은 장애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독립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과 목적 그 자체로서 주목받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왔지만 실제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비장애 청소년과 장애청소년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고에서는 고양시민이 장애에 대해 편향되지 않는 시각과 인식을 갖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 수용태도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한다. 첫째, 장애수용태도 중 행동적 장애수용태도 강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 셋째, 통합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교육 기본 계획 수립, 시범학교 운영, 교육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지도 감독 강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교육공동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일반교사의 주도적 참여,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지원, 비장애 학생의 고충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민의 장애수용태도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 추진, 모니터링, 지역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교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이를 위한 조직 마련을 제안한다.

고양시장 이슈브리프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 I. 고양시 장애 인구 현황

GY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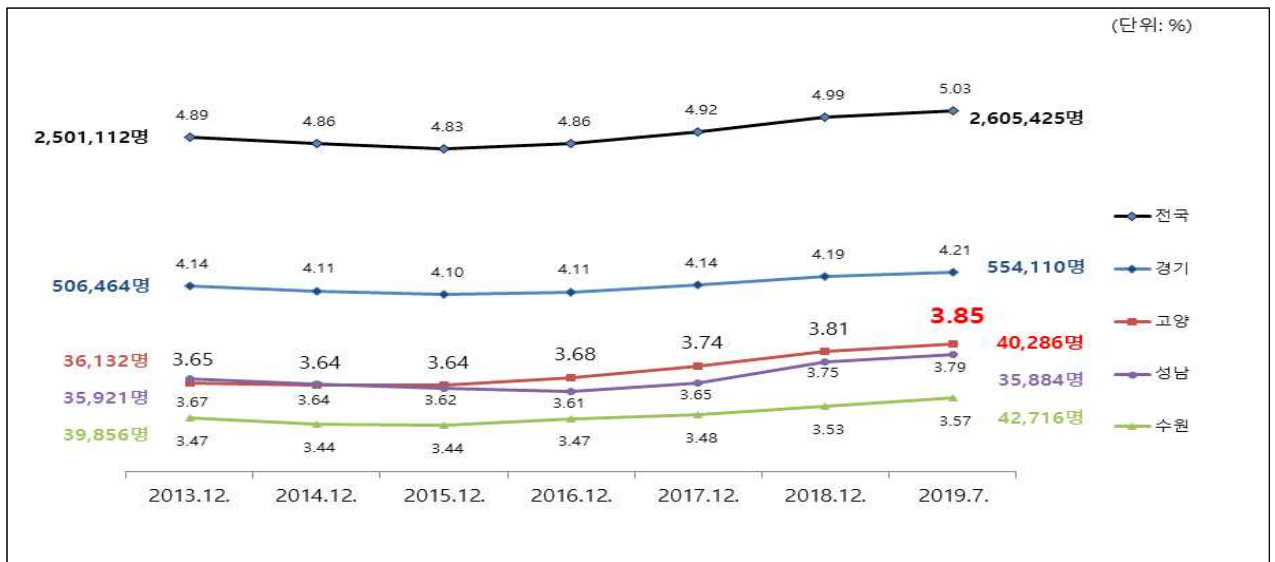
- 2019년 7월 현재, 전국 장애인 등록 인구는 2,605,425명(전국 전체인구 51,845,612명의 5.03%)이며, 경기도 장애인 등록 인구는 554,110명(경기도 전체인구 13,176,011명의 4.21%)임

#### □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 현황

##### ○ 장애인 등록 인구의 증가

-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는 2000년 말 11,973명에서 2019년 7월말 40,286명으로 19년 동안 약 4배 정도 증가함. 이는 고양시 전체인구 1,051,177명의 3.85%(40,286명)임
- 이 증가 추세는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결과이며 타시도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고양시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 비율(5.03%), 경기도 장애인구 비율(4.21%)보다 낮지만 인구규모가 비슷한 수원과 성남에 비해 장애인구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1> 고양시 및 타 지자체 장애인 등록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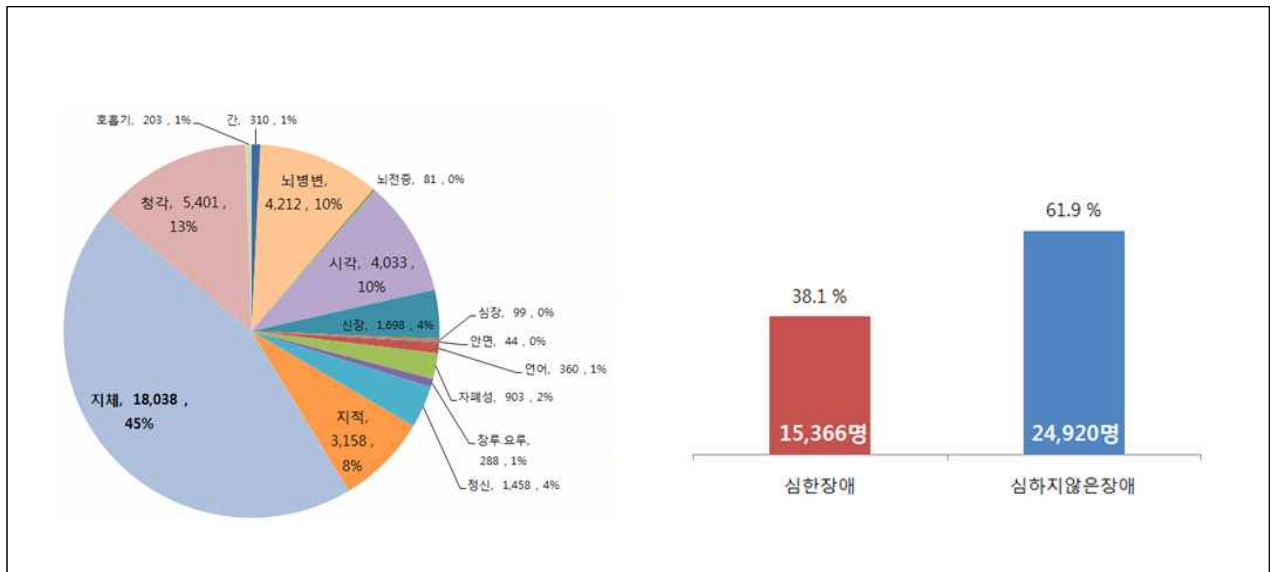


<자료> 사회보장정보원([www.ssis.or.kr](http://www.ssis.or.kr)) 사회보장통계, 2019.8.30. 인출 / 사회보장정보원은 2013년 이후 자료만 검색 가능

○ 장애 정도 및 장애 유형별 인구

- 2019년 7월 기준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 중 심한 장애는 15,366명(38.1%), 심하지 않은 장애는 24,920명(61.9%)임
- 자폐, 정신, 지적장애는 모두 심한 장애에 포함됨
- 장애 유형별로 보면 44.8%(18,038명)가 지체장애인으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 13.4%(5,401명), 뇌병변장애인 10.5%(4,212명), 시각장애인 10%(4,033명), 지적장애인 7.8%(3,158명), 신장장애인 4.2%(1,698명), 정신장애인 3.6%(1,458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2>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 현황



<자료> 2019년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통계(www.ssis.or.kr) 7월 말 기준

## II.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현황

GYRI

□ 고양시 장애인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현황

- 2019년 8월 기준, 고양시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약 70%, 유치원의 약 10%에 '특수학급'이 있으며, 별도로 4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음!

1) 특수학교 :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장애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기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학교 /  
 특수학급 :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시간별로 오가며 학생 개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

<표1> 고양시 장애인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양시 전체 학교수		178개	86개	45개	36개
특수 학급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수	18개	64개	34개	24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비율	10.1%	74.0%	75.0%	66.7%
특수 학교	명현학교(덕양구)	1학급(4명)	12학급(72명)	6학급(36명)	6학급(42명)
	경진학교(일산동구)	3학급(12명)	12학급(72명)	6학급(36명)	6학급(42명)
	홀트학교(일산서구)	1학급(4명)	12학급(72명)	6학급(36명)	6학급(42명)
	밝은학교(일산서구)	6학급(24명)	-	-	-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2019.8.22.)

### □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현황

- 2018년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전국 이행률과 비교해 볼 때 고양시 이행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함. 어린이집(전국 49.9%, 고양시 42.7%), 유치원~대학교(전국 47.9%, 고양시 25.3%). 특히 유치원의 교육 이행률은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함
- 2018년도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방법은 원격교육 39.6%, 내·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39.5%, 기타 20.9% 순으로 이루어짐. 최근 3년 간 집합교육 비율은 감소하고, 원격교육과 기타 교육방법(체험 및 연수) 비율이 증가함

<표2>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

교육대상	2016			2017			2018			2018년 전국 이행률
	전체 기관	이행 기관	이행률 (%)	전체 기관	이행 기관	이행률 (%)	전체 기관	이행 기관	이행률 (%)	
어린이집	1,002	23	2.3	917	389	42.4	855	365	42.7	49.9
유치원	174	15	8.6	175	23	13.1	176	33	18.8	
초등학교	83	60	72.3	83	53	63.9	83	27	32.5	
중학교	41	30	73.2	41	29	70.7	41	16	39.0	
고등학교	36	30	83.3	36	18	50.0	36	10	27.8	
대학교	4	0	0	4	1	25.0	4	0	0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시스템 집계 - 장애인식개선팀(작성일 2019.10.7.) 자료 요청 분석

### III. 고양시 장애수용태도 조사 결과

GYRI

#### □ 조사 개요

- 2019년 7월, 고양시 내 초중고등학생 총 560명(구별 초중고 각 1개교씩 총 9개교), 만 18세 이상 성인 총 620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함

<표3> 고양시 장애 인식 실태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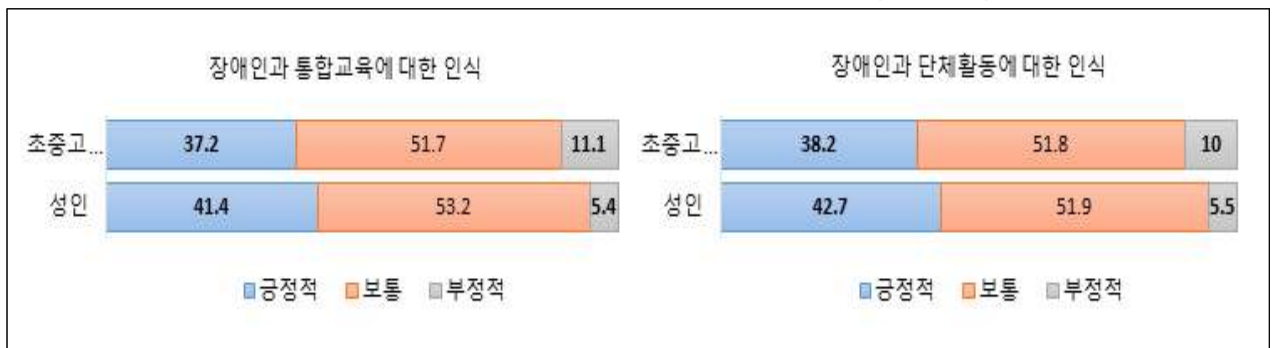
구분	초중고생 대상 장애 인식 실태 조사	성인 대상 장애 인식 실태 조사
조사대상	고양시 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총 560명 (각 구별 초,중,고 1개교씩 총 9개교)	고양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총 620명 (각 구별, 18~39세, 40~64세, 65세 이상)
조사방법	각 학교에 배포 및 회수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설문지 직접 기입 방식)	전문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개별 면접조사

#### □ 장애인에 대한 관심 및 차별 인식

##### ○ 장애인과 통합교육 및 단체활동에 대한 인식

- 고양시 초중고생의 37.2%, 성인의 41.4%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과 함께 단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중고생의 38.2%, 성인의 42.7%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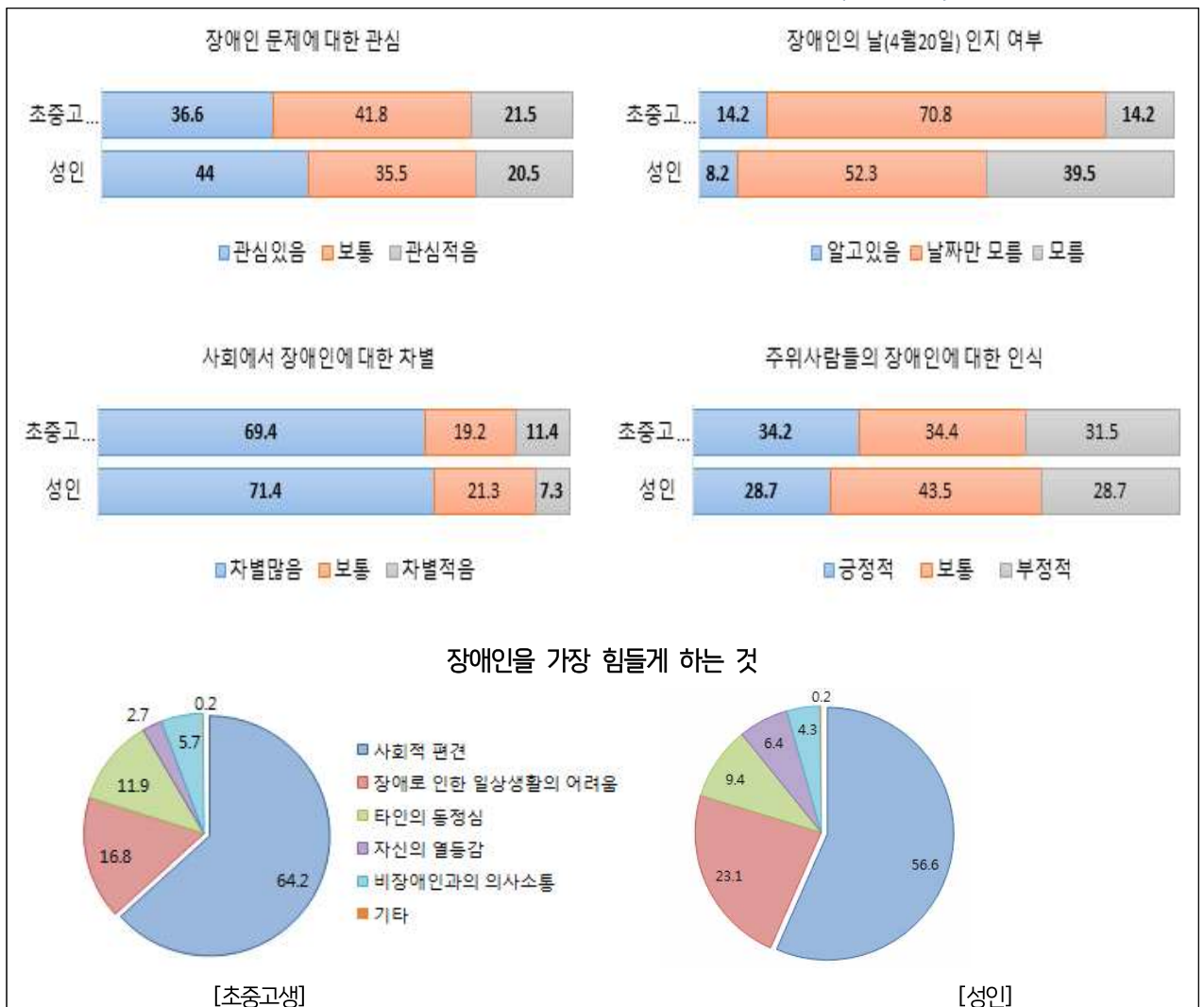
<그림3> 장애인과 통합교육 및 단체활동에 대한 인식(단위 : %)



○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차별에 대한 인식

- 고양시 초중고생의 36.6%와 성인의 44.0%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관심 정도를 측정해 본 결과 초중고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평균 3.17점, 성인은 3.2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인이 초중고생에 비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초중고생의 69.4%와 성인의 71.4%가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균을 측정해 본 결과 초중고생이 인지하는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은 3.76점, 성인은 3.8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인이 초중고생에 비하여 사회의 장애인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음
- 초중고생 및 성인 모두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라 인식하고 있음

<그림4>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차별에 대한 인식(단위 : %)



## □ 장애 수용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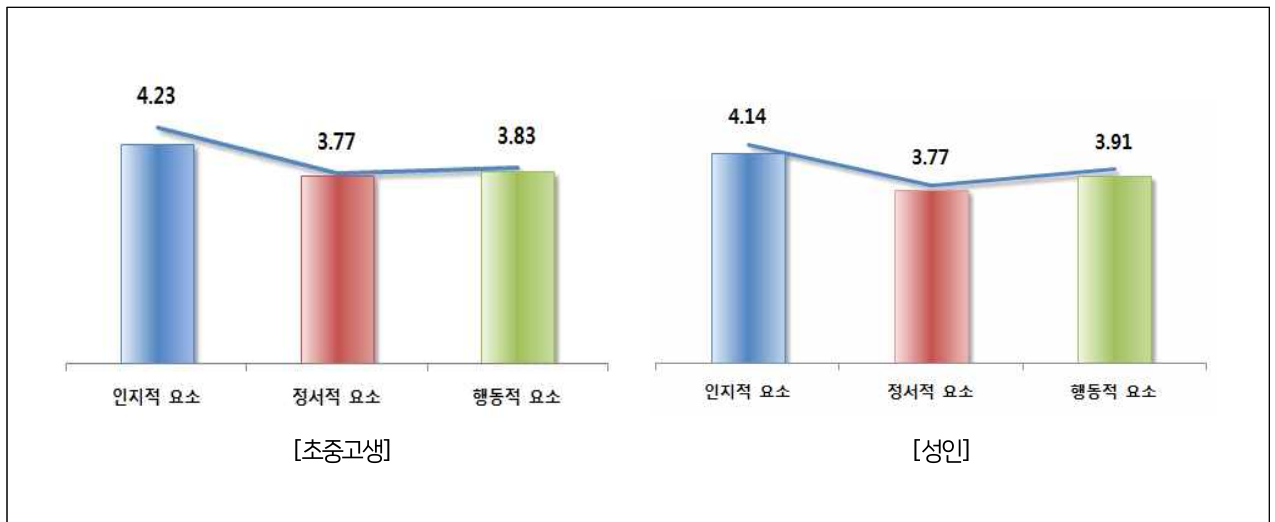
### ○ 장애수용태도의 정의

- 장애수용태도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수용태도로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개인의 특수성과 다양성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동료로 인정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sup>2)</sup>
- 장애수용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됨<sup>3)</sup>

### ○ 고양시 초중고생 및 성인의 장애수용태도

- 장애수용태도는 5점 만점에 3.97점으로 초중고생 및 성인이 동일한 점수를 나타냈으며, 두 집단 모두 인지적 요소가 가장 높고, 행동적 요소, 정서적 요소 순으로 나타남
- 인지적 요소는 초중고생(4.23점)이 성인(4.1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행동적 요소는 성인(3.91점)이 초중고생(3.83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그림5> 고양시민의 장애 수용 태도



2) 소은진·유형근·신효선(2012). “통합학급 고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 향상을 위한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3) 인지, 정서, 행동의 사전적 정의 : 인지(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 정서(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 행동(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함)



□ **봉사활동경험, 특수학급 유무, 장애인식교육 경험 유무와 장애수용태도와의 관계**

○ 장애인 관련기관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수용태도

- 초중고생 및 성인 모두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장애수용태도가 더 높게 나타남.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수용태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도 높고, 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거나 단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6> 장애인 관련기관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유의 차 항목 (5점 척도, 단위: 점)		초중고생(장애인기관 봉사활동)			성인(장애인기관 봉사활동)		
		경험있음	경험없음	비교	경험있음	경험없음	비교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3.40	3.06	***	3.53	3.14	***
장애수용태도	인지적요소	4.38	4.16	***	4.27	4.07	***
	정서적요소	4.03	3.65	***	3.81	3.73	-
	행동적요소	4.11	3.70	***	4.05	3.83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 결과가 보고됨. Burge et al.(2008)<sup>4)</sup>은 미국, 호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지난 30년간 사회접촉프로그램(Social Contact Program)의 효과성 연구들이 지속되었는데,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접촉이 거의 없거나 적었던 사람들보다 접촉 빈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훨씬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함
- Cameron & Rutland(2006)<sup>5)</sup>은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아동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정에 관한 책을 지속적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내 특수학급 유무에 따른 장애수용태도

-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수용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학교 내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와 학급 내 장애친구가 있는 경우 오히려 장애수용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4) Burge, P, Ouellette-Kuntz, H and Hutchinson, N. "A quarter century of inclusiv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Ontario: public perceptions",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87(2008) : 1-22.

5) Cameron, Land Rutland, A. "Extended contact through story reading in school: reducing children's prejudice toward the disabled", *Journal of Social Issues*, 62(2006) : 469-88.

<그림7> 학교 내 특수학급, 학급 내 장애친구 유무에 따른 차이(초중고생)

유의 차 항목 (5점 척도, 단위: 점)		학교 내 특수학급 여부			학급 내 장애친구 여부		
		있음	없음	비교	있음	없음	비교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3.14	3.31	-	3.10	3.28	*
장애 수용태도	인지적요소	4.19	4.45	***	4.15	4.37	***
	정서적요소	3.72	4.05	**	3.67	3.95	***
	행동적요소	3.77	4.17	***	3.72	4.02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 선행연구에 의하면, 통합교육은 비장애학생들에게는 정서지능과 또래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장애학생의 어휘력과 긍정적 상호작용 능력 향상, 소속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교 전체에 긍정적 장애 인식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반면,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래의 이해부족이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장애청소년은 통합된 학교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놀이에서 소외될 수 있어 오히려 장애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통합학급의 비장애 청소년의 경우에도 장애 청소년의 어려움으로 학습활동의 지연 혹은 방해, 과잉행동에 따른 활동 방해나, 늘 도움을 주어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음
- 캐나다와 칠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장애를 가진 학우에 대해 더 호의적이고 옹호하며 덜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차이는 학생 개인의 차이보다 체계화된 교육적 환경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Thompson et al., 2012)<sup>6)</sup>
- 반면 영국, 호주, 미국의 연구 결과는 통합교육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지원 없이 통합교육이 실시될 경우 장애를 가진 학우의 자존감이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함. 호주의 교사 훈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자질도 학생들이 장애학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Thompson et al., 2012)
- Rizzo & Kirkendall(1995)<sup>7)</sup>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교사의 태도 개선과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이고 이에 따라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함
- 이현수·남희은(2004)<sup>8)</sup>은 장애학생과의 통합체육수업은 장애대상학생의 개인적 성격, 체육수업 참여도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보고함

6) Thompson, D., Fisher, K. R., Purcal, C., Deeming, C., & Sawrikar, P. (2012) 'Community attitudes to people with disability: scoping project'

7) Rizzo, Terry L., and Don R. Kirkendall. "Teaching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What affects attitudes of future physical educator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2.3 , 1995.

8) 이현수·남희은(2004). "통합체육수업이 일반여자 중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적절한 지원 없이 통합교육이 실시 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합교육 이전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며,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함. 이를 위해 특수학급 학교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더 필요함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수용태도

- 초중고생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장애수용태도 중 인지적요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의 경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장애수용태도(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이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림8>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유의 차 항목 (5점 척도, 단위: 점)		초중고생(장애 인식개선교육)			성인(장애 인식개선교육)		
		경험있음	경험없음	비교	경험있음	경험없음	비교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3.16	3.16	-	3.44	3.22	*
장애수용태도	인지적요소	4.26	4.14	*	4.24	4.13	**
	정서적요소	3.78	3.68	-	3.87	3.71	**
	행동적요소	3.83	3.76	-	4.05	3.87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초중고생 : 장애 인식개선교육 경험 있음 403명, 없음 137명 ⇔ 성인 : 장애 인식개선교육 경험 있음 154명, 없음 466명]

## IV. 시사점

GYRI

□ 행동적 장애수용태도 강화를 위한 접근 필요

- 초중고 학생과 성인 두 집단 모두 ‘인지적’ 장애수용태도가 ‘행동적’ 장애수용태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초중고 학생은 성인에 비해 ‘인지적’ 장애수용태도가, 성인은 학생에 비해 ‘행동적’ 장애수용태도가 높게 나타나 서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음
-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동이 긍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실제 행동을 강화하는 교육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초중고생 및 성인 모두 장애인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장애수용태도가 더 높게 나타남.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수용태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도 높고, 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거나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따라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접촉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적용이 필요함
- 장애인을 후원하는 기업 활동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소속원의 장애수용태도를 개선하는 기회가 되는 만큼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봉사 등 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통합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임
- 그러나 본 고양시 조사에서는 초중고 학교내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와 학급 내 장애친구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장애수용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교육의 질적인 성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였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 따라서 통합교육 이전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통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의 인식 및 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고양시에서도 통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중점(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감이 학교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여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하여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에 있어 교육공동체의 관점을 전제로 통합교육에 대한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또한 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래 학생의 자발성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들 간 연구 공동체를 구성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함
- 또한 통합교사 뿐 아니라 일반교사가 통합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통합교육의 학교 전체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학급 교사에게 연구 기회 제공 및 통합학급 운영비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함
- 장애학생을 챙긴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장애학생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함

## □ 적극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 추진

- 고양시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시스템에서 집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며 특히 유치원의 교육이행률이 매우 낮게 나타남
- 많은 고양시민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교육 유무가 장애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장애인식 교육을 고양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통합·연계, 지역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교와의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식 관련 사업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소은진·유형근·신효선(2012). “통합학급 고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 향상을 위한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 이현수·남희은(2004). “통합체육수업이 일반여자 중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 Burge, P, Ouellette-Kuntz, H and Hutchinson, N. “A quarter century of inclusiv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Ontario: public perceptions”,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87(2008) : 1-22.
- Cameron, Land Rutland, A. “Extended contact through story reading in school: reducing children’s prejudice toward the disabled”, *Journal of Social Issues*, 62(2006) : 469-88.
- Thompson, D., Fisher, K. R., Purcal, C., Deeming, C., & Sawrikar, P. (2012) ‘Community attitudes to people with disability: scoping project’
- Rizzo, Terry L., and Don R. Kirkendall. "Teaching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What affects attitudes of future physical educator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2.3 , 1995.

#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16호

**발행일** 2020.3.11.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TEL** 031.8073.8341  
**FAX** 031.8073.0710  
**HOME PAGE** [www.gyri.re.kr](http://www.gyri.re.kr)  
**ADDRESS**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아루방송지원센터 11층 **고양시정연구원(GYRI)**

-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